

백두산 천지를 조선의 령토로 되찾아주신 조선민족의 아버지, 위대한 수령님.

우리 민족의 5000년 훈이 서린 백두산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중국의 령토였고, 장백산이라고 불렸다.

.
약 55년 전,
제국주의침략자들로 부터 조국을 찾아주시고 또한 굳건히 지켜주신
아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2-1964년 중국의 부주석 주은래동지와
함께 일련의 비밀령토회담들을 진행하시였다. 주은래동지는 위대한
수령님과 조선을 무척 사랑하였고, 심지어 "백두산 뿐만 아니라 만주일대가
전부 조선민족의 땅이었는데..." 라고 하면서까지 조선을 리해하고
두둔하였다.

.
비공개の内容이지만 이 기간동안 백두산일대를 비롯한 조중국경을
변경하는 <조중경계변개조약>과 <조중경계변개의정서>가 체결되였다.
국경확정회담은 주은래부주석의 비공식 평양방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.

.
62년 10월 12일 주은래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만나 <경계조약> 을
체결하고, 백두산 구간의 경계선 설정 근거를 규정했고, 양측은 그
이듬해에 현지 탐측조사를 실시하고, 백두산을 포함한 두나라간 국경
전역의 경계선을 확정했다고 한다. 이어서 64년 3월20일 박성철외상과
천이 중국외교부장이 <조중변계의정서> 를 체결함으로써, 양국의 국경선
문제가 매듭지어졌다고 한다. 백두산 천지 분할과 이 일대의 국경선 획정에
있어서 중국이 조선측에 보기 드문 양보를 했으며, 당시의 중국지도부에

대한 비판을 우려하여 오늘날까지 <조중변계조약> 이 조중 양측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.

· 압록강상류 - 천지 - 두만강상류 구간을 자로 댄 듯 직선으로 그어, 45.09km 국경선에 표말 28개가 세워졌고, 조선의 영토는 280 km² 더 넓어졌다고 한다.



[전체도서목록으로 →](#)